



존 라일 저 | 서금욱 역 | 그책의사람들

곰 두 마리

이정규

존 라일(1826-1900)은 경건한 개혁주의적 청교도였다. 가장 모범적이고 경건한 청교도가 어린이의 회심을 위해 남긴 설교 5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웠다. 100여 년 전 어린이 설교는 어땠을까? 어떻게 설교했을까? 5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작은 책은 얇고 가벼웠지만 각각의 설교 분량은 적지 않았다. 설교는 활자가 아니라 언어로 전달된다는 측면을 이해하면 분량의 많음과 반복되는 표현이 이해가 된다. 설교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소리 내어 읽고 듣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어린이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라일의 열정이 느껴진다. 100여 년 전이나 오늘이나 복음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라일의 설교에는 현대 설교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 5편의 설교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회심을 위한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을 일찍 찾으라”는 제목으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전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 라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어린이의 영적 상태와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소녀와의 기차여행 예화에는 복음의 핵심과 더불어 어린이 회심을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다.

두 번째 설교인 “진리 안에서 걸으라”에서는, 요한이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성경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전한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진리를 알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한다. 라일의 설교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간절함과 감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어땠을지 상상해 본다. 당시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설득되고 재촉 받았을 것이다.

모든 설교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성령께서는 설교자를 통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설교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지만 부드럽게 다독이시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이다. 라일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설득과 재촉하심이 느껴진다. 어린이들은 라일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과 재촉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걸으세요!”

세 번째 설교인 “곰 두 마리”는 열왕기하 2장 23-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린이의 행동과 태도를 보시는 분으로 악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심판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전한다. 죄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현대 어린이 설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근대 사상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철학은 현 시대적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어린이 설교 안으로도 파고들어서 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대신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절박한 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가치하며 자각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엡 2:8).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자격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복음의 가치와 선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라일은 그것을 어린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복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도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이해하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돌이켜야 한다. 라일은 인간 본연의 상태와 모습을 엘리사와 곰 두 마리, 한 그룹의 나쁜 어린이들을 통해 가감 없이 전하며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가치하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엡 2:8)

네 번째 설교인 “작고도 지혜로운 것”은 잠언 30장 24-28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지를 전한다. 본문은 개미와 사반, 메뚜기와 거미는 작고 약하지만 지혜롭다고 말한다. 라일에 의하면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사반은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장소의 예비에 대해, 메뚜기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성에 대해, 거미는 목적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는 이러한 동물과 곤충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며 끝까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도 작고 약하지만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다 (히 4:12).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린이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어린이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회심의 열매를 맺으신다. 라일은 말씀으로 어린이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설교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 번째 설교인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에서는 요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울 일이 많은 장소와 울 일만 있는 곳, 절대 울 일이 없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일은 울 일이 많은 곳(지금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고 울 일만 있는 곳(지옥)에는 고통과 슬픔뿐이라고 하면서, 절대 울 일이 없는 곳(천국)에 가기 위해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고 증거한다. 울 일이 많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라일은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치와 표준이 됨을 강조한다. 이 땅에서 살면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일의 회심을 위한 어린이 설교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한 한 적게 우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 내용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울 거예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장차 올 세상에서 다시는 울지 않을 거예요!”

〈곰 두 마리〉는 존 라일이 어린이의 회심을 위해 전한 다섯 편의 설교를 모은 책으로, 현대 어린이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어린이 설교는 재미와 흥미를 위해 다양한 시청각적 방법과 기법을 동원하여 어린이의 눈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러한 감각적 산만함은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든다. 반면 라일의 설교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린이를 향한 구령의 열정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현대 교육에는 아동 중심, 흥미, 재미가 중심이 된 교육 방법과 기법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교육사상의 조류는 교회교육과 어린이 설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재미와 흥미에 따라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교회가 어린이의 전도와 구원을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어린이에게 맞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이유가 흥미와 재미 때문이고, 예배와 설교가 이렇듯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에 나오지는 몰라도 신앙과 영성은 성숙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없는 사랑만을 전하는 부드러운 설교는 어린이에게 복음을 깊이 이해시키지는 못한다. 라일의 어린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회생의 사랑, 믿는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전하려는 한 경건한 사람의 헌신을 볼 수 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 라일이 말씀을 전할 당시 어린이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는 성령의 역사, 순수하며 성경적인 복음의 강력한 선포, 그들(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려는 라일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개혁주의적 청교도의 영적 거인이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이 우리 시대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는 어린이 설교자들에게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규 강원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개혁신학연구원(M.div.)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보육학(M.ed.)을, 총신대학교원에서 기독교유아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현재 예장원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